

종합

2011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 (단위:천원)

◇ 광주·전남 국회의원

Table with 3 columns: Name, Assets, Liabilities. Lists names like 김기정, 김동철, 김성근, 김영철, 김명록, 김영진, 김재석, 김효석, 박상천, 박주선, 박지원, 유윤근, 유순호, 이남연, 이윤석, 이윤식, 장병완, 조영택, 추승용, 최인기.

◇ 광주·전남 고위기관장

Table with 3 columns: Position, Name, Assets, Liabilities. Lists positions like 광주고법원장, 광주지법원장,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 전남지방경찰청장,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 광주시

Table with 3 columns: Position, Name, Assets, Liabilities. Lists positions like 시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국제관계지원대사,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 광주시의회의장.

시의원

Table with 3 columns: Name, Assets, Liabilities. Lists names like 이은방, 이준문, 임동호, 전주연, 정병문, 정현애, 정희근, 조영표, 조오섭, 조호근, 진성기, 허문수, 홍인화.

◇ 전남도

Table with 3 columns: Position, Name, Assets, Liabilities. Lists positions like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국제관계지원대사, 광안민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진군수, 고흥군수, 곡성군수.

Table with 3 columns: Name, Assets, Liabilities. Lists names like 광양시장, 나주시장, 담양군수, 목포시장, 무안군수, 보성군수, 순천시장, 신안군수, 여수시장, 영광군수, 완도군수, 장흥군수, 함평군수, 해남시장, 전남도의회의장.

도의원

Table with 3 columns: Name, Assets, Liabilities. Lists names like 김은미, 김민중, 김보현, 김선호, 김영남, 김영우, 나중현, 문상필, 박인화, 서정성, 손재홍, 송경중, 이은방, 이준문, 임동호, 전주연, 정병문, 정현애, 정희근, 조영표, 조오섭, 조호근, 진성기, 허문수, 홍인화.

시의원

Table with 3 columns: Name, Assets, Liabilities. Lists names like 김은미, 김민중, 김보현, 김선호, 김영남, 김영우, 나중현, 문상필, 박인화, 서정성, 손재홍, 송경중, 이은방, 이준문, 임동호, 전주연, 정병문, 정현애, 정희근, 조영표, 조오섭, 조호근, 진성기, 허문수, 홍인화.

노-사 대치 장기화 우려

금호타이어 파업 하루손실 60억...채권단 워크아웃 중단 검토

워크아웃 중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금호타이어의 노사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장기화가 우려된다. 특히 하루 60억원에 달하는 파업 손실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채권단의 '워크아웃 중단'이라는 강경기류도 감지돼 파업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사 입장 팽팽=노조는 사측에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25일 파업 집회에서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파업에 들어갔다"며 교섭 촉구를 위한 '경고성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관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단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교섭 주장은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집단협약을 무효화하는 것이어서 사측은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해 체결한 집단협약은 유효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며 "노조의 교섭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집단협약을 준수하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노사교섭이 아닌 집단협 부가 합의는 노사협회의·고용안정노동사공동발전위원회 등 노사협의체에

서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루 파업 60억원 손실피해 눈덩이=25일 하루 전면 파업으로 금호타이어는 매출 손실 등 직접 피해만 60억원에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이어진 노조의 특근(휴·연근) 거부와 근무조별 1시간씩 매일 3시간 기계가동 중단 등으로 지난 23일까지 매출 손실액이 310억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 철회를 하지 않으면 직장폐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채권단 워크아웃 중단 시사=채권단은 노조 파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호타이어 주주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결정(작년 집단협)된 것 가지고 재협상은 없다"며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금호를 살리기 위해 1조원 가까이 투자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파업이냐니 이해할 수 없다"면서 "파국을 원치 않는다. 자기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자제와 지역 사회의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망하는 것 아니다.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며 워크아웃 중단을 시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대 국제교류박람회 전남대학교의 국제교류 현수소와 관련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1 국제교류 박람회'가 25일 대학내 국제회의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독일대사관과 필리핀 관공청, 국제인턴 파견업체, 교내 영어동아리 등이 참가해 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회의원 75% 재산증가

47% 1억원 이상 늘어...주식·부동산 주요인

2010 공직자 재산 변동내역

지난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국회의원 292명의 2010년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한 결과, 219명(75%)의 재산이 증가하고 73명(25%)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재산 증가자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38명(47.3%)인 반면 1억원 이상 줄어든 경우는 30명(10.3%)으로 집계됐다.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의원은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으로 작년 한해 2조2207억4586만원이 늘어났다. 이어 김호연·윤상현·조진형·정의화(이상 한나라당), 최인기(민주·이우경(창조한국·배영식(한나라·윤상일(미래희망연대)·김영환(민주) 의원이 재산증가 상위 10위에 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재균 회화 13점·손재홍 보석 3억9천만원...

희귀·이색 재산

국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2011년도 재산변동 목록에서 눈에 띄는 희귀 및 이색재산 목록은 고가의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와 금, 예술품이었다. 한나라당 정의화 국회의장은 배우자 명의로 1.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2개와 진주목걸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병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의장의 배우자는 다이아몬드·에메랄드·양식 진주 반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3캐럿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다. 동양화나 서양화 등 예술품을 보유한 국회의원도 상당수였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남농 허건, 소치 허유 등 13점의 회화를 신고해 '예술품 최다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의회 손재홍(민주·동구 2)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순금 9000g(3억4000만원)과 다이아몬드 및 진주(5000만원) 등 총 3억9000만원의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손 의원의 총 재산은 5억1700여만원으로 보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했다. 손 의원의 배우자가 이처럼 금을 많이 보유하고 된 것은 금·은방을 운명하다 몇 년 전 폐업하면서 일부 재도 몰랐던 것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송경중(민주·광산 3) 의원은 본인 명의의 순금 210g(1120만원), 부인 명의의 순금 124g(600만원) 등 총 2980만원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은방(민주·북구 6) 의원은 담프트르 6대, 골삭기 2대 등 건설 기계를 대거 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설

지방 죽이는 취득세 감면 당장 철회하라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50%나 감면키로 한 데 대해 광주와 전남 등 전국 16개 시·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중요한 재원인 취득세가 절반이나 줄어들게 되면 세수 중 광역시의 14%, 도의 30%를 차지하는 지방재정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광주시는 세수 감소가 353억 원, 전남도는 무려 405억 원에 이른다. 가뜰이나 재정이 열악한 양·시·도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47.5%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전남도는 13.5%로 도 단위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교육세 32억 원을 제외한 321억 원 가운데 자치구 몫이 234억 원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5개 구청은 오히려 보전 격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여러가지 면에서 납득되지 않는다.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게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주택 거래에서 가수가 있는 곳은 수도권 뿐이지 지방은 모두 실수요로, 세금 때문에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현실과 괴리가 크다.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얼마를 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대략만 내놓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지방세를 희생양으로 삼기보다는 국세인 양도세를 감면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MB정부는 '지방 죽이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지역 편중 '과학벨트위' 공정성 우려된다

국제과학기술벨트 위지 선정에 대해 지역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입지를 결정할 과학벨트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이 특정지역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과학벨트위원회 당연직 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영남 출신이다. 거기에다 다른 1명도 직전까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이사를 역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연직 위원이 영남 일색으로 채워진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물론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과학벨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최대 13명의 민간위원이 더 임명될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 과학벨트위원회는 민간위원의 출신지 분포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을 맞출 여지는 있다.

하지만, 민간위원은 위원장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과학계 인사를 위촉하게 된다. 위원장이 이주호 과학기술부 장관이 대구 출신이어서 과연 민간위원 위촉이 공정하게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특히 당연직인 정부위원의 영향력이 민간위원보다 훨씬 막강할 것은 불문가지다. 설립 민간위원의 지역별 분포가 균형있게 이뤄 진다 해도 입지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과학벨트는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이 사활을 걸다시피 하며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입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다면 탈락지역의 엄청난 반발 등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위원회 구성부터 균형을 잃고 특정지역에 편중돼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오히려 혼란과 분열만 초래해 과학벨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27 재보선 한달앞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경쟁률 6:1

전형준-임호경 또 한번 '집안 대결'

오는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 공모에 총 6명이 접수해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전형준 전 화순군수가 25일 무소속으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임호경 전 군수와의 '집안 대결'이 또 한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5일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6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모자는 ▲김이남 국제 신화대 총무이사 ▲김재택 무진의료재단 이사장 ▲김형래 동북조합장 ▲배동기 전 화순부군수 ▲임근기 화순부군수 ▲홍이식 전남도의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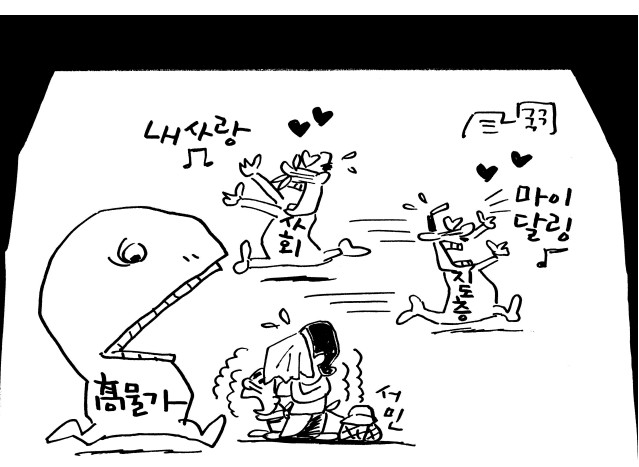
오래 등록한 임호경 전 군수와의 대결이 불가피해 이번 화순군수 재선거에서도 일명 '부부군수' 대 '형제군수'의 집안 대결이 또 한번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두 전직 군수 후보의 해묵은 대결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후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형준 전 화순군수는 민주당 복당이 여의지 않자 민주당 후보 공모에 참가하지 않고, 이날 화순군 선관위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배동기 전 화순부군수만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히 부부, 형제로 이어지면 10년 가깝게 이어져 온 두 집안의 해묵은 싸움으로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민심이 크게 악화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새로운 선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두 전직 군수 등의 무소속 출마로 선거 과열도 우려된다. 현재 무소속 후보는 임호경·전형준 전 군수와 민병홍 전남도교육위원, 임호환 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등 4명으로 늘었으며, 민주당에서는 백남수 후보가, 진보신당에서는 최만원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배동기 전 화순부군수만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나라꼴이 갈수록 유습게 되는구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간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